

위대한 지혜는 회의적이다

<니체>

외대학보

단기 4292년 5월 20일 (제25호) (제3종우편물인가 4291. 3.27) 허가번호 제99호

발행인 박술음
편집인 함일근
주관 손기상
한국의국어대학
발행소 의대학보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6091, 6092, 6093.
자매지 THE ARGUS
일부 30 환

The Oe Dae Hakbo, Published by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Foreign Language College of Korea, Seoul, Korea

자리 잡혀 가는 본 대학의 캠퍼스

본관 증축 도서관 대학원 중강당 착공 도로 불원간 완성 본관 앞에 연못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잠시 동안 지연되어 왔지만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준공을 보리라든 청부입자축의 말을 믿는다 동시에 예상대로 진행되도록 학교측으로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5월 말경에 준공되리라든 예상되던 본관 800여명의 증축 공사가 그동안 지연되어온데 대하여 안(安)숙희(安)사무과장은 이상과 같이 시사하였다

또한 계속 본 대학의 「Campus」정리 내 대학기 물는 기자 질문에 대하여 조선 착암기계공업회사(朝鮮鑛岩器製造工業會社)의 사택이었던 건물은 이미 불하 양도하였거니와 본 대학 내지 안에 속한 모든 부지가 건축물은 일체 철거하여 대지의 확장을 꾀하리라든 대답하였다

안 과장은 이어서 본 대학 입구로부터 본관 「Campus」를 일부 뚫고 지나갈 신설 도로에 언급하여 도로 공사 역시 불원간에 완성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도 적극 힘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 있는 전 좌압기 공업회사의 건물중 일부는 수리하여 임시로 학생들을 위한 오락실로 이용하리라고 하며 동 건물 앞의 낮은 대지에는 자연적인 석천(石泉)을 이용하여 연못을 팔 것이며 본관 바로 앞에 있는 높은 들머는 깎아 버리고 운동장을 끝내기 시작할 것이며 본관 증축 공사가 준공 되는 즉시로 도서관과 대학원 건물 및 중 강당을 착공하리라고 한다 한편 본관 증축 공사 지연에 대한 공사 현장 감독의 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 감독의 말: 『지연된 이유에는 첫째 본사측의 사정과 둘째 건축 설계도의 일부 변경에 있으나 현상태로 보아서 6월 말까지는 내부 정리까지 완전히 완성 되리라고 본다』

신입생 환영 음악회 각과 별로 개최

금년도 신입생을 맞이하여 각과에서는 각기 아래와 같이 등 환영 음악회

체육시설을 완비하도록 체육 교사 회의에서 결의

지난 8.9양일간에 경기하고 강당에서 전국 체육 담당교사 회의가 개최되었던 바 본 대학에서는 한연경(韓連敬) 선생이 참석하였는데 동 회의의 석상에서는 각급 학교의 건강 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의하였는데 그 중요한 결의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문교부 3대 장학법칙에 건강교육을 중시하는 동시에 사기육을 금년부터 편입 강화한다 또한 와 민족정기를 고취할 것 학도 체육 대학 체육학점을 최소 4학점, 최대 8학점

의 밤을 열었다 불어과: 5월 12일 명동 SS 뮤지 홀에서 과 주임 이진구 조교수와 정명환 전임강사 참석 독어과: 5월 10일 둘째 음악실에서 과 주임 전희수 부교수 참석 서어과: 5월 16일 명동 SS. 뮤지 홀에서 과 주임 김이배 전임강사 참석

대천에 교직원 방가로 명년에는 학생판도

이키 기보한 바도 있거니와 금년 서

3개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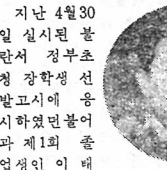
정 병준 동문 영국정부 초청 장학생



영어과 제1회 졸업생이며 현재 영어과 조교인 정(鄭)병준(秉準)동문은 작년 11월 중순에 실시된 영국정부 초청 장학생(British Council Scholarship) 선발고시에 응시하여 2명의 합격자 중에 선발되는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이미 영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까지 도착, 오는 7월 26일경에 영국을 향하여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 BCS 장학금이란 여비 생활비, 학비를 비롯한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문의 전공은 영문학이다

이 태건 동문 불란서정부 초청 장학생



지난 4월 30일 실시된 불란서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고시에 응시하였던 영어과 제1회 졸업생인 이태건(李泰健)동문은 3명의 합격자중에 선발되어 불란서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최 체육 방침을 반드시 실시할 것, 따라서 저학년(低學年)만으로는 부족하다 졸업시까지 할 것

2.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 전문가를 채용, 체육시간을 강화할 것
3. 각급 학교에 체육 시설을 속히 완비할 것
4. 체육 운동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도 도의심을 확립하는 동시에 사기육을 중시할 것

정기 음악 감상회 -매주 목요일-

호국단 문화부 주최로 본 대학 학생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전된 정신을 중부하게하여 피로를 풀어 주기위 하여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무과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여름철의 즐거운 방학 생활을 위해 대학 편수육장에 본대학 여름 별장을 건축중에 있다 한다 현재 교직원관을 건축중이며 명년 가을에 학생 관을 완공을 위한 기초공사도 완료 되었다 한다

한편 금년 여름철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담한 캠프촌이 마련 되리라든 방가로 이용에 대해서는 추후 학생과에서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한다

최 두환 동문 서독정부 초청 장학생

독어과 제1회 졸업생이며 독어과 조교인 최두환(崔斗煥)동문은 지난 2월 중순에 실시한 서독정부 초청 장학생(DAAD)선발고시에 응시하여 합격, 현재 서독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다

동 DAAD 장학금은 왕복여비를 제외하고는 일체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친선 경기를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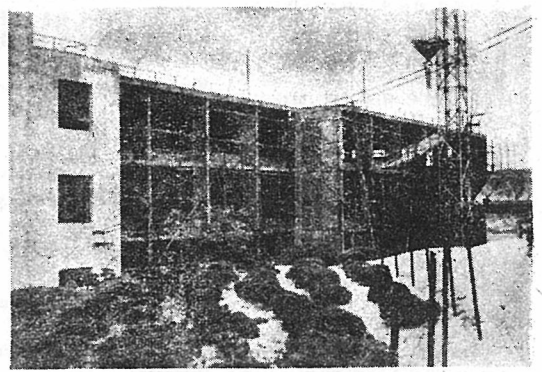
서울 사대 교수 팀과 -탁구에 득승 배구는 석패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본 대학 교정에서는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교수팀을 맞아 본 대학 교수팀과의 친선 경기 탁구와 배구 두종목에 걸쳐 거행되었다

바야흐로 작열하던 태양도 한 고비를 넘어 수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받아 시중 화기에 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경기에서 본 대학 교수팀은 역전 분투한 결과 탁구경기에서는 5대 2로 득승했으나 배구경기에서는 2대 0으로 석패했다

정기 음악 감상회

호국단 문화부 주최로 본 대학 학생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전된 정신을 중부하게하여 피로를 풀어 주기위 하여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하머 오는 7월경에 출발할 최 동문의 전공은 독문학이다

「구미 시찰담」 이선근 박사 강연



여학생회에서는 5월 20일 수요일

제1회 시와 음악의 밤

-30일 HLKY 뮤지홀에서 외국어로- 학위에서 주최 본사 후원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시와 음악의 밤」이 개최된다

「제1회 시와 음악의 밤」의 목적은 전라를 망라한 총체적인 외국 시와 미국의 뛰어난 음악을 감상할 기회를 가지므로서 대외적으로는 본 대학의 문학적 실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대내

적으로는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촉진하고 정서로써 함양하는데 있다고 한다

불문화 연구회 임원 개선

본 대학 불문화 연구회에서는 5월 2일 동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하였다

- 회 장 박중진 (4)
- 부회 장=서병기 (3) 정해웅 (2)
- 간 사=전정환 (3) 한규장 (3) 외 4명

Christian Fellowship 임원 개선

본 대학 Christian Fellowship에서는 지난 7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하였다

- 회 장 장상준(張相浚) E3
- 부회 장 박효성(朴孝貞) E1
- 총 무 김영운(金英運) E2
- 서 기 이진연(李鎭淵) E2

오후 1시부터 107호실에서 본 대학 학도호국단 후원으로 성균관대학 총장인 이선근 박사를 초빙하여 「구미 시찰담」이라는 연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학생위원회 정기 총회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생 위원회 금년도 제1학기 정기 총회는 지난 5월 19일 각 반 대표들의 다수 참석리에 학생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그런데 이번 총회의 주요 토의 사항은 결산 심의 예산 통과 그리고 계획 보고 등이었으며 앞으로는 대표 이예도 「음새버」로서 학우들의 많은 방청을 바란다고 한다

졸업 준비위원 선정

본대학 제3회 졸업예정자들은 동 졸업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30일 위원장 및 위원들을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 | | | |
|-----|---------|---------|
| 위원장 | 변영복 (R) | 주도용 (E) |
| 위원 | 박용구 (G) | 유동민 (E) |
| | 김중진 (F) | 김영호 (E) |
| | 김영호 (B) | 임병수 (S) |
| | 이종문 (C) | |

중남미 문화 연구회 임원 개선

중남미 문화 연구회에서는 지난 7월 30일에서 제 4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임원 개선과 개최된 임원의 회원들에 대한 인사에 이어 여러가지 침체 상태에 놓여 있던 남미 제국과의 관계 개선 등 전적인 토의가 있었으며 동 회의에서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김영문 (S3)
- 부회 장 김추원 (S2)

사 고

지난 5월 8일 시행한 바있는 본보의 견습기자 시험은 의외로 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입사자 명단은 아래와 같음을 알립니다

장	상	준 (E 3)
회	정	오 (C 2)
원	비	기 (G 2)
리	원	귀 (G 2)

단기 4292년 5월 20일 의 대 학 보 사

Baudelaire의 죽음과

金 榮 昊

佛蘭西 詩人 중에서 비용 (François Villon)을 除外하고는 아마 Baudelaire 만큼 깊이 죽음과 親密하게 사귀며 살아온 詩人은 없을 것이다. 죽음이란 그에게 있어서 一種의 強迫觀念과 같은 것이어서 죽기까지 20年 동안 그의 作品 속에서 作用했고 또한 그의 思想을 整理해 왔다. 우리는 그의 作品中 到處에서 이 죽음에 對한 것을 發見할 수 있다 허나 이것은 그의 人間的인 不幸의 解決策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恒常 追求해온 人間宿命에 對한 考察에 向한 唯一한 解決方法으로서였다. 그의 미치광이 같이 격렬한 想像의 구석에 깃들여 있는 이 죽음에 對한 執着에는 마치 15世紀의 基督敎人들의 信仰과 같은 眞實성이 있었다.

Baudelaire는 決코 基督敎人은 아니었다. 도리어 그는 神學에 對해선 全코 無知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天國에 對해서 언급하고 哀切하게 神을 불려볼때도 많았다. 天國에 들기를 希望하는 句節은 그의 作品中 여러곳에서 發見할 수 있다. 더욱이 그의 生涯中 끊임없이 불려드는 病이나 不安 苦悶에 民衆의 非難攻擊은 (Les Fleurs du Mal을 發表했을 무렵부터) 그에게 이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죽은 後에 天國에 들어 靈魂을 救濟한다는 생각을 했다. 허나 이것은 "살았을 적에 善을 행하여 죽은 後에 天國에 들어 安樂한 生涯를 延長시킨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現世에서 느낀 苦痛, 苦惱, 不條理, 不安 등으로 부터의 單純한 逃避로서의 靈魂 救濟였다.

「靈魂의 救濟에 對한 생각은 우리들을 未來에 連結시킨다」(Mon Coeur mis à nu 42)

그러면서도 우리는 一面으론 그의 虛無主義에 부닥치게 된다.

Le printemps adorable a perdu son odeur!
香氣로운 '봄'도 이제 그의 香氣를 잃었다.

(Le Goût du Néant)

경신적으로 肉體의으로 나에게는 恒常 深淵의 感覺이 있다. 夢이 睡眠의 深淵이 아니라 行爲의, 理想의, 道徳의, 慾望의, 悲嘆의, 悔恨의, 美의, 數의, 外로 가지각색의 深淵의 感覺이.....

나는 기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나의 히스테리를 길러왔다. 이제 와서 나는 끊임없이 현기증을 느낀다.
(Mon Coeur mis à nu 87.)

그의 詩나 書翰文에서 여러차례 表明한 虛無나 日記에 나타난 靈魂이 救濟에 對한 關心은 어떻게 보면 많은 矛盾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Baudelaire에게 있어서 이兩者는 모두 그의 捉을 수 없는 現實에 對한 亞暴한 程度의 反抗이 있고 이 現實 아닌 것에 對한 期待 乃 있는 그의 希望이었다. 實上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天國이 아니라도 좋았다. 靈魂의 救濟가 아니라도 좋았다. 虛無, 單코 虛無 그것만이라도 관계 없었다. 于先 이, 絶望 止 없는 現實에서 벗어 나고 必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가 安息處를 죽음에서 求하면서 和蘭으로 和蘭이나 東洋 등의 地上의 一部에서 그의 別天地를 發見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Baudelaire가 對한 死의 形態에 對해서 若干 보아 나가겠다.

Où je puisse à loisir étaler mes vieux os
Et dormir dans l'oubli comme un requin dans l'onde.

거기 한가로운 내 늙은 뼈를 펼쳐 물결속의 상어 마냥 나 망각속에 잠들 수 있으리.

Voyez venir à vous un mort libre et joyeux;
그대 보라 자유롭고 즐거운 죽음이 그대에게 온다.

—즐거운 죽임—
生으로 부터의 解放은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다.

—O douleur! ô douleur! Le Temps mange la vie,
Et l'obscur Ennemi qui nous ronge le coeur

Du sang que nous perdons croit et se fortifie!
오 피로움여! 오 피로움여!
「時間」은 生命을 먹어드니,
이 침침한 원수는 우리 心臟을 파먹고
우리가 잃은 피로 자라고 살찌나니!

—원수—
여기서 원수는 苦痛이며 苦惱이다. 이 원수는 우리가 살아있는 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절될 수 없는 피로움이다.

Les vibrantes Douleurs dans ton coeur se planteront bienfort comme plein déffroit
진동하는 「苦惱」가 두려움에 가득 찬 心 臟을 머지 않아 파먹을 뚝뚝이 내 고통이리라.

Et j'ai pompé ta vie avec ma pompe immonde!
저 추루른 내 吸管으로 네 生命을 빨아 올리리라.

Où tout te dire: Meurs vieux lac he! il est trop tard!
모두 입을 뚝아 너에게 말하리라, 죽이라, 늙은것아! 이제 늦었다고

C'est la Mort qui console, hélas! et qui fait vivre;
C'est le but de la vie, et c'est le seul espoir
慰勞하며 살아갈 힘 주는 것 아! 죽음! 이는 人生의 目的이며 唯一한 希望

C'est l'aulerge fameuse inscrite sur le livre;
Où l'on pourra monger, et dormir, et s'asseoir;
사람들 저기서 먹고 자며 앉아 쉴 수 있는;
책에 도 적힌 이름 높은 주막집.
Et qui refait le lit des gens pauvres et nus;
발가숭이 人間에게 잠 자리 마련해 주는,

C'est la gloire des Dieux, C'est le grenier mystique,

C'est la bourse du pauvre et sa patrie antique,
C'est le portique ouvert sur les Cieux inconnus!
이는 神들의 榮光, 神秘로운 穀倉, 가난한 者의 지갑이며 그의 옛 祖國, 未知의 하늘 나라위에 열려진 廻廊!

—가난한 者들의 죽음—
슬프도라 죽음만이 우리의 慰安者란 말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人生으로 부터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光明이나 잠 자리나 혹은 그와 어떠한 것이거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 단지 그들은 幻想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느낀다. 이 幻想이란 그들에게 이 幻想을 갖도록 하는 죽음이어야만 한다.

여기서 책이라 함은 聖經을 말한다 가난한 者들에게 있어서는 베블리력을 수 있는 穀倉이나 富는 죽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O Mort, vieux capitaine, il est temps! levons l'ancre!
Ce pays nous ennue, ô Mort! Appareillons!
Si le ciel et la mer sont noirs comme de l'encre,
Nos coeurs que tu connais sont remplis de rayons!
Verse-nous ton poison pour qu'il nous réconforte!
Nous voulons, tant ce feu nous brûle le cerveau,
Plonger au fond du gouffre, Enfer ou Ciel, qu'ilimporte?
Au fond de l'Inconnu pour trouver du nouveau!

—Le Voyage—
오오 죽음, 늙은 船長이여 이제 떠날 때! 닻을 잡자!
이 땅이 우리에게 恨배를 준다. 오! 죽음이여 뚝을 올리자
하늘과 바다는 밀물처럼 짐어도 그대 아는 우리마음 光明에 찾도다. 이 불명이가 이토록 우리 心 臟을

배우나니
우리에게 그대의 毒藥을 부어다오 그것은 우리 힘을 부추겨 주리니 地獄이건 天國이건 무슨 아랑곳, 저 深淵의 발바닥,
未知 그 속에 잠기과져, 새로운 것 찾기 위해!

—여행—
地獄이건 天國이건, 혹은 그밖의 어떠한 곳이건 간에 그에게 마참가지였다. 이 現實的인 곳이든 모두 동등한 것이었다. 단지 未知의 속, 그곳에는 무엇 새로운 것이 있으리라! 苦惱나 不安이나, 그리고 病도 없지는...

× × ×
이렇듯 죽음과 親해은 Baudelaire는 末期에 가선 그의 病이 極度로 惡化되어 完全히 全身不階해진 狀態로 모든 知力, 理性을 잃어—(아아)—그 自身의 죽음도 意識하지 못한채 1867年 世上을 떠났다.
(볼퍼와 조교, 제1회 講문)

時 評 伯林紛糾와 亞細亞의 戰雲

昨年 후루시즈 프 蘇聯首相이 소 謂伯林問題에 對하여 西方面에 最後通牒에 類似한 威嚇 即來 5月 27日의 期限까지 西베르린으로 부터 西方面의 駐屯部隊를 撤收하지 않을 境遇에는 蘇聯은 撤收오르마도 東쪽과 講和條約을 締結하여 베르린에 對한 管轄權을 東獨 傀儡政權에 移讓하겠다는 宣言이 있는 後 西方面營을 唐突히 하였으며 이것은 東西 外相會談乃至 頂上會談으로의 무기한 延宕을 促하였다 그러나 이번 東西會談은 過去의 것들과 相異한點이 있는 것은 갈등 수가 없었으나 그 첫째로는 社會黨의 召集會議이 過去的 것처럼 急한 意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쓰린의 伯林問題에 對한 恐嚇通牒때문이라 할 것이요 둘째로는 지금까지 四大國外相會議의 形式을 취해오다가 이번에는 西方面을 西獨을 包含시켜서 四大國으로 隨한데 對해 共產黨은 波蘭의 혁명을 勇서서 資格으로 계가 東獨까지 包含시켜서 亦是 共產黨도 四個國으로 나타났으므로 及其也 八個國外相會議이 될 것이라는 點이 特異한 것이니라 하겠다 문제는 그 特異한 動機와 參加國들의 增加 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一言而蔽之하면 蘇聯이 頂上會談을 하는 動機는 첫째는 蘇聯의 軍事實力을 誇示하는 宣傳舞臺로 하는 데 主된 目的이 있고 둘째는 共產主義가 世界到處에서 不利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頂上會談으로서 카바하자는 데 있는 상식이다 후루시즈프가 頂上會談을 開議하기 爲해 複雜多端한 伯林問題를 들고 나온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리라 이 것들은 蘇聯이 西方面에 窮極에 가서는 西方面의 勢力을 西베르린으로부터 逐出하기 爲한 것으로 看做된다 하겠다 그러나 現에 밀레세의 後任者로 任命된 허비國務長官은 「밀」세와 같이 對蘇強硬態度를 維持하고 있는 以上 撤收는 할 것을 것이요 그렇다고 이 伯林紛糾의 時限爆彈의 日字가 徐徐히 臨迫하고 있다해서 蘇聯이 갑자기 감퇴할 것 같은 것은 實情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自己의 力量을 미리 자랑하기 보라 모자라고 미치지 못하는 힘에 自己의 忠告가 보배이 되고 그리

고 伯林問題에 對한 蘇聯의 提案인 獨逸分裂의 現狀을 凍結하면서 伯林危機를 더끼르려 頂上會談을 해보자는 意圖 即陰謀에서 行해진 데는 明若觀火하다 外氣圖 開拓分野에 있어서나 미사일分野에 있어서나 對蘇 威信을 挽回한 美國으로서는 頂上會談을 開議를 遲延乃至 회피할 理由는 없었던 反面에 蘇聯의 二年前의 頂上會談開議 失敗에서 노리던 政治的 目的은 減少되었다 할 것이다

現在 西方面의 統獨構想— 臨時로 兩獨聯邦政府부 構設해 놓고 五年以內에 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主權統獨國家를 樹立하자는 것이니라 이것을 東西會談에서 共產黨이 提示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은 唐突한 빛을 나타낼 것이나 그들은 반드시 이 分裂되어 있는 獨逸을 現狀維持할 것 이다 그러나 西方面이 新新案을 提示하면 西베르린 問題뿐만 아니라 全獨逸問題에 關한 會談에 있어서도 西方面이 잃었던 이니시티브를 回復 挽回한다는 것으로도 多少의 收穫이 있다할 것이니라 그렇기하면 이 伯林紛糾에 西方自由陣營이 神經을 集中시키고 있는 동안 過去 韓戰戰爭에 있어서 스탈린이 노리던 即 아세 戰爭을 勃發시켜 西方의 視線은 여기에 모으게 해놓고 구라파에 國際共產主義를 浸透시켜 共產化하려고 하는 手法을 아세아에서 使用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敗行한 이번에는 구라파를 騷擾해 놓고 亞細亞에 있어서 冷戰의 主導權을 掌握하려고 共產主義者들은 劃策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美國務省도 果次 警告한 바 있거니와 最近 中共이 西藏事變發展으로 인하여 받은 一敗塗地의 威信을 挽回하기 爲하여 또 안으로는 人民公社制 失敗를 카바하기 爲해서 煙臺戰術인 野蠻의인 불장난을 할 危險성이 어느때보다도 濃厚하다 또 伯林的 蘇聯의 危機造成은 어느 意味에 있어서는 中共의 對內的인 政治的 失敗나 對外的인 侵略의인 것을 뒤에 숨기기 爲한 煙臺戰術에서 招致되었다고 쉽게 想到할 수가 있다 그래서 伯林危機造成

에 있어서 共產黨이 노리던 效果가 稀薄해진 이상 언젠가 그리하듯이 亞細亞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의 危機造成은 必然의인 아닐까 懸念된다 그 最近한 例로서는 最近 中共이 軍事에 豫算을 많이 보자는 意圖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說明해 주고 남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去般 반동會議에서 中共이 얻은 威信을 이번 西歐陣營으로 그것이 急降下될까 뿐만 아니라 印度와의 關係가 尤甚히 惡化되었다는 것이다

蘇聯의 餘波는 東南亞亞細亞一帶의 佛敎信徒들의 憤怒를 삼으므로 當分間은 이를 抑하기 爲해서 그리고 侵略의 方向을 印度나 파키스탄 그리고 東南亞亞細亞로 돌릴것이라고는 疑心視되나 中共이 去般의 金門島 馬祖島 侵攻時에 많은 苦痛을 받았던 飛行機를 이번에는 蘇聯으로부터 MIG와 新武器를 輸入해서 다시 臺灣 海峽을 騷亂스럽게 할 것이니라 틀림없을 것 같다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이 亞細亞와 歐羅巴를 한꺼번에 侵攻해 들어올 때는 美國은 從來의 觀念으로 歐洲一邊 對하는 政策을 취하지 않을가 해서 우리는 이 兩側攻擊乃至 侵略을 생각해서라도 萬敵의 國家의 覆滅의인 防衛態勢을 갖추어야 함은 再言을 防하지 않는다 (金南權 G4)

안온·체호프 著 (女苑社)
車 榮 根 譯
決 闘

안온·체호프 著 (陽文庫)
金 鶴 秀 譯
約 婚 女

본 들 레 트 著 (陽文庫)
李 相 桓 譯
裸 心

하우트만 著 (陽文庫)
姜 斗 植 譯
쑤아나의 異瑞者

▲ 大學은 自己 本然의 한 人生을 보람있게 살기 爲한 最初의 開門이며 人生의 여러 道徳과 自己의 나날길을 邁步 追索하는 곳이라하여 別로 어긋남이 없으리라

▲ 大學過程에서의 思考와 努力과 勤勉은 自己 人生의 모든 人格 知性的의 바탕이 되리라

▲ 여기까지 生 活하여 온데도 現在 우리 주위의 大學生에게서는 眞實

로 그중 무엇을 얻을 것인가 恒常 雜談과 놀람 그리고는 安穩한 遊戲속에 서 지내고저 하지 않는다

▲ 希望과 願望과 情熱과 夢이 없는 젊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 大學生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絶望해야 하는가

▲ 비겁과 아부가 生의 方法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自己의 力量을 미리 자랑하기 보라 모자라고 미치지 못하는 힘에 自己의 忠告가 보배이 되고 그리

므로 完全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 學報의 年報이 말하듯 그 學報의 內容들이 우리에게 滿足을 줄 수 없는것을 구태이 변경하거나 內容가 보다는 차라리 언제나 바라듯이 보다 力量있는 作品을 가지고서 힘있게 協助하기를 願望은 비단 특별한 學報關係者라고 해서는 아니라 그 大學新聞이란 그 大學 學生 全部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 지는것임을 인식하여 忠實한 誠實한 비단이나 불평은 쉽사리 있을 수 없을것이다

▲ 불평과 비난을 할 수 있는 力量이 現存 陣營에 나와 주기를 갈망하는 眞誠의 姿勢로서의 檢索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收斂되어 가고 있는 것은 나무와 숲을 가꾸어 좀더 아름다운 나리들을 이루고자 힘써야하리라

▲ 한마디 꼭 질문하고 싶은 말은 비단도 불평도 얼마든지 좋다 그것이 올바른 眞誠으로서 傾聽하여 建設的인 意見이 될지 질문 한다는 범위 안에서 마련 말이다

大學은 自己 本然의 한 人生을 보람있게 살기 爲한 最初의 開門이며 人生의 여러 道徳과 自己의 나날길을 邁步 追索하는 곳이라하여 別로 어긋남이 없으리라

大學過程에서의 思考와 努力과 勤勉은 自己 人生의 모든 人格 知性的의 바탕이 되리라

여기까지 生 活하여 온데도 現在 우리 주위의 大學生에게서는 眞實

로 그중 무엇을 얻을 것인가 恒常 雜談과 놀람 그리고는 安穩한 遊戲속에 서 지내고저 하지 않는다

希望과 願望과 情熱과 夢이 없는 젊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 大學生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絶望해야 하는가

비겁과 아부가 生의 方法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自己의 力量을 미리 자랑하기 보라 모자라고 미치지 못하는 힘에 自己의 忠告가 보배이 되고 그리

므로 完全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學報의 年報이 말하듯 그 學報의 內容들이 우리에게 滿足을 줄 수 없는것을 구태이 변경하거나 內容가 보다는 차라리 언제나 바라듯이 보다 力量있는 作品을 가지고서 힘있게 協助하기를 願望은 비단 특별한 學報關係者라고 해서는 아니라 그 大學新聞이란 그 大學 學生 全部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 지는것임을 인식하여 忠實한 誠實한 비단이나 불평은 쉽사리 있을 수 없을것이다

불평과 비난을 할 수 있는 力量이 現存 陣營에 나와 주기를 갈망하는 眞誠의 姿勢로서의 檢索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收斂되어 가고 있는 것은 나무와 숲을 가꾸어 좀더 아름다운 나리들을 이루고자 힘써야하리라

한마디 꼭 질문하고 싶은 말은 비단도 불평도 얼마든지 좋다 그것이 올바른 眞誠으로서 傾聽하여 建設的인 意見이 될지 질문 한다는 범위 안에서 마련 말이다

全國 中 高 校 外 國 語 教 育 實 態 調 查

본 대학 The Saturn Club 조사 결과

외국어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실로 重要大하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중학생으로부터 사회 일반에 이르기까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어에 대한 연구열이 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실태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조망하기 위하여 본 대학이 다음이 되고자 「한국의국어대학」內에서 활동하는 Club활동 중의 하나로서 동 대학 일과 3학년 학생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The Saturn Club」에서는 본보와 협조를 얻어 지난 多期放學 동안을 이용하여 전국 중·고·고교 16個地區에 있는 中·高學校 135個學校를 상대로하여 조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 각 도시는 편이상 서울,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중소도시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에 180명, 대도시 60명, 중소도시 160명, 도합 중·고교 교사 400명이었으며 대상 학교는 남자가 56교, 여자 30교, 남자 중학교 33교, 여자 중학교 16교, 도합 135개교이었는데 이를 도시별로 보면 서울이 56개교로서 남자 중학교가 11개교, 여자 중학교가 9개교, 남자 고교가 24개교, 여자 고교가 12개교이며 대도시는 남자 중학교 2교, 여자 중학교 1교, 남·여 고교 6교, 여자 고교 8교, 도합 17개교였다.

조사 방법은 첫째 무슨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외국어 담당 교사가 제작 시찰에 무슨 과목을 전공했는지, 둘째 외국어 교사 유학을 하고 돌아온 교사는 얼마나 되나, 셋째 교사들의 교직 연한은 얼마나 되나, 다섯째 외국어 교수의 수를 조사하고, 여섯째 외국어 지식을 늘리기 위한 Club활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등 모두 여섯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一) 무슨 교과서를 사용하나

외국어 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보려는 것은 교과서 뿐인 듯 하다.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많은 종류의 교과서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어에서는 그 예를 대표한 듯 하며 문법이란 교과서는 그 수가 극히 적은 것을 볼 때 문법과 작문을 따로 교수하지 않고 문법과 어휘를 교차하여 가르치는 것을 일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몇몇 교사들은 요구하기를, 수 많은 교과서가 출간되어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하여금 어느 것을 택하여야 좋을지 몰라서 혼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 학계의 권위 교사들로 구성된 각 외국어 교육연구회 같은에서 충실한 몇개의 교과서를 발간하든지 혹은 추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外國語 教材(도표1)

英 語	日 語	法 語	獨 逸 語	中 國 語
Union				
Standard				
Model				
Living				
Universal				
Grammar				
Better English				
New Star				
The School Reader				
Dixon				
Model Standard				
New System				
National Living				
English High Light				
Central English Reader				

Outside Reading

Extensive Exercise English

Victory English Reader

Orion

English Grammar & Composition

World

Thinking In English

Hothorn Biographical Stories

獨 逸 語

Neues Deutsche Lehrbuch(김보경)

Tchang's Deutsche Lehrbuch Immensee

German Lehrbuch

Modernes Deutsche Lehrbuch

Neues Deutsche Lehrbuch(김정진)

Neues Deutsche Lehrbuch(최민홍)

새 도취할 말 종합교본

Der Deutsche Schrittmacher Deutsche Lehrbuch

佛 語

초급불어 불어문법

Cours de Langue Française

Nouveaux Cours de Française

中 國 語

中國語讀本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어 교사중에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교사가 수위로 193명, 법과 전공이 29명으로 차지하며 상과와 경제과가 이에 유박하고 있다. 한편 독어 교사로는 독어 독문학 전공이 13명으로 상위, 법과가 10명으로 차지한다. 불어 교사는 불어 불문학 전공이 3명으로 영어 영문학 전공의 5명보다 2명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량한 것은 영어 교사중 영어를 전공한 교사가 193명으로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의 총수 130명보다 63명이 더 많다는 현상이다. 그러나 독어는 아직도 독어 전공한 교사 13명보다 다른 전공이 29명으로 16명이 더 많다는 점은 고려할 문제이다. 도표에서 영어에 20명, 독어에 3명, 중국어의 총2명의 기과라 함은 고등학교 출신과 특학을 포함시켰다.

(二) 교사들이 재학시에 무엇을 전공했나

교사들의 재학시 전공한 과목을 조사한 결과, 영어 전공이 193명, 법과 전공이 29명, 상과와 경제과가 이에 유박하고 있다. 한편 독어 교사로는 독어 독문학 전공이 13명으로 상위, 법과가 10명으로 차지한다. 불어 교사는 불어 불문학 전공이 3명으로 영어 영문학 전공의 5명보다 2명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량한 것은 영어 교사중 영어를 전공한 교사가 193명으로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의 총수 130명보다 63명이 더 많다는 현상이다. 그러나 독어는 아직도 독어 전공한 교사 13명보다 다른 전공이 29명으로 16명이 더 많다는 점은 고려할 문제이다. 도표에서 영어에 20명, 독어에 3명, 중국어의 총2명의 기과라 함은 고등학교 출신과 특학을 포함시켰다.

教師의專攻(도표2)

專攻	英 語	日 語	法 語	獨 逸 語	中 國 語
전공	193	2	5		
영문학	37	6			
상경학	29	10			
법학	9	1			
역사학	5	2			
정치학	13				
독일문학		13			
의예과	5				
신학	1	1			
사회학	7	1			
철학	5	3			
신문학	5				
화학	1	1			
농문학	1				
물리학	1	3			
언어학	2	1			
불교학	1				
라틴문학		1			
정치학	1				
발법학	1				
아동교육		1			
사회사업	1				
수학	2				
생물학	2				
국문학	2				
기타	20	3			2
합계	343	45	10		2

(三) 외국에서 유학한 교사는

이것 역시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누어 보았다. 도표(3)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서울의 28.9%가 외국유학 교사인데 비하여 중소도시는 10%로서 불만족 2명을 제외하고는 7명이 일본 유학이었다. 미국 유학 교사가 서울에는 4명이 되었지만 중소도시에는 하나도 없었고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海外留學教師(도표3)

지역	美國	日本	上海	France	其他	計
서울	4	39	2			7
대도시		12				12
중·소도시		7		2		7
計	4	58	2	2		14

(四) 교사들의 교직 연한은 얼마나 되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은 될 수 있는대로 시골에는 가지 않을려고 함이 나타났다. 총 유학 교사는 조사대상 교사 400명 중에서 80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다량의 교명이 불분명한 것이다.

教師生活期間(도표4)

연수	1년미만	1~3	4~7	8~10	11~15	16~20	21
서울	5	29	87	31	24	3	1
대도시	1	9	33	12	3	1	1
중·소도시	8	56	37	14	9	1	1

(五) 외국어 교수 방법은 어느것을 택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조사 중에서 가장 혼란을 많이 이룬 것은 이 문제였다. 「Oral」식, 문법식, 混用式의 한계는 분명히 했으나 솔직히 말하여 개중에는 자기가 택하고 있는 교수 방법이 무슨식에 속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서 고개를 가웃동 하는 교사도 있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또한 여기서는 교수방법을 아무렇게 생각하여 기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外國語教授方法(도표5)

方法	지역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O R A L	英 語	9	5	19
	佛 語	2		1
	中 國 語	1		1
	獨 逸 語	1		1
G R A M	英 語	58	19	45
	佛 語	1	1	1
B O T H	英 語	12	3	7
	佛 語			1
	中 國 語			3

도표(5)를 들여다 보면 서울의 약 43.5%가 혼용식을 택하고 대도시는 45%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으나 중소도시에는 문법 교수식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볼 때 문법식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태의연을 면하지 못하고 아직도 고루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다. 외국어 교수에는 「Oral」식이 가장 최적하다함은 부인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겨져 있지 않은 예가 많다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예로가 있기는 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가지 「Oral」식에서 생기는 교습과 효과 및 그 실행 경험들을 잘라내어 추려보았다.

「매우 힘들다」 「반복하여 크게 읽기를 강조한다」 「읽기와 질문 발음등을 중심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주된 방식이 되지는 않으나 辯論사용이나 외국인 방문등을 하므로서 그 효과는 크다」 「학생들은 문법 교수법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방법이 대학진학 시험을 치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듣고 모토하고 노래하고 노는 것을 전부 영어로 하고 있다」 「어휘의 근원을 연구하기도 한다」 「외국어를 위한 도서관을 따로 특별히 구성하고 있다」 「엑셀트와 억양등을 강조한다」 「실제적인 영어를 교수한다」 「축음기를 사용하며 많이

나 너무 혼란을 이키웠기에 했수로 고쳤다. 그런데 17개월이나 15개월과 같이 1년 6개월 미만의 것은 반올림하여 1년으로하고 이상의 것은 2년으로 하여 따라서 다른 연한의 계산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4) 중소도시에는 46.6%로서 58명의 교사가 1년과 3년사이의 교직 연한을 가지고 있고 역시 중소도시에도 4년부터 7년이 37명이나 되며 서울과 대도시에서는 각각 48.3%와 55%를 4년부터 7년사이의 연한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지점에서 5~6년전 즉 6·25의 전운이 가시지 얼마 안되어 모든 것이 한참 혼란되어 있을 당시에 가장 많은 교사가 교직 생활을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다. 서울과 대도시에서 21년 이상인 한명씩 있는데 대도시에는 교사는 무려 45년으로서 반평생 이상을 외국어 교육에 바쳐 온 분이다 또한 서울의 교사는 26년이다. 중소도시를 제외하고 대도시와 서울에는 교직연한이 긴 다시 말하여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1년미만이 11개월로부터 1개월까지이며 기과라 교직 연한을 기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제 6 회 전국 학교 학생 외국어 50면 대회

제 6 회 전국 학교 학생 외국어 50면 대회

일시: 六月二十六日(日) 下午二時

본선: 六月二十七日(日) 下午二時

본선 전년도 수상장

내용: 자유

진위: 七字 이내

용어: 英, 佛, 中, 獨, 日, 法

제출처: 본 대학 학생부

마감: 六月十三日

심사: 六月二十日 各校 개별 통지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7-1

전화: 六〇九二

가 않다」 「교재가 마땅치 않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에게는 남 모르고는 고충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사제의 권위자들에게 호소를 해보고 싶은 것도 여러가지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Oral」 교수법이 있어서 중소도시가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혼용식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六) 외국어 지식을 늘리기 위한 Club 활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이 문제를 삼입한 이유는 Club 활동에서 얻는 지식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때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문교부 지시로 각 학교에 「특별활동」이란 것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사실 상 그런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었다.

도표(6)에서와 같이 그 종류에 매우 다양성을 띄고 있다. 다시 말하여 Club내에서 외국어 회화 작은 번역 문법 시사 신문 등 여러가지를 다루고 있다. (3월 30일 현재)

CLUB 활동 상황(도표6)

活動 CLUB 名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English Conversation Club	16	6	11
English Eloquence Club	1	1	
U.N. Students Activity	9		5
E.Speaking Association	8	2	5
Newspaper Reading Club	3		
Oratorical Club	3		
Journal Club	2		
Pen Pal	1		
School Paper	5		
Current English Club	1		
Special E. Training Club	1		
Home Room	1		
Société de la Literature			1
English Grammar Study			1
English Dialog Club			1
English Special Activity			1
Deutschen Sprachen Partei			1
The Basic E.Club			1
各班英語研究會			1

園 丁 李 裕 曠

꽃을 피우며 지게하는 寒度속에 그는
어느날 진한 꽃실로 變貌해 있었다.
奇蹟의 눈과
손이며 그를 흔들며 주는 크나큰
母音은 빛줄에
따져 달는 새의 悲鳴이었을까.
— 그의 가슴에서 뿜어나는
피물은 喚液이었을까—

바람에 부러진 가나니 苗木에서
밋밋한 果實들의 씨앗속에서 그는
숨쉬는 무엇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며,
우리 농동자속에 있는
太陽은 무엇이었고

때울순 있었다.
傷處담은 世界의 어느곳
그 언덕에 누운
戰死者의 가슴위에 우리는 무엇이었고
겨냥할수 있었다
멀리는 接線과 半圓안에 담구는
새여, 靑紅의
날개달에 던져진 武器는
지금도 慢性에 묶여 있었을까.
凍結한 季節의
裏面에
漆黒의, 눈동자로, 트인, 奇蹟이,
나리는, 順列은 그의
목선 가슴을
달래고 있었을까 아니면
바람처럼
가고
있을까 (F1)

實存主義와 誠實性

張 德 相

(1)

實存主義하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듯하고 또 한갓 流行思想과 같아 있어 있지만 簡單히 定義를 내리기는 특히 어려운 일이고, 複雜한 理論的 關係를 거치지 않고는 쉽사리 實存主義 哲學을 理解 하기가 힘들 것이다. 自然히 여기서는 紙面關係나 眞實의 哲學者만을 들어 說明하기로 하되 그것도 實存主義의 誠實性問題에 입각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요즘 電車나 버스 안에서 「異邦人」이나 「베르트」 「哇吐」나 혹은 「聖」을 껴 다니는 男女高等學生들을 종종 보았고 최근에는 「샤르트르」의 「自由의 길」을 갖고 다니는 大學生들을 흔히 發見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언제나 마음에 不安을 느끼곤 했다. 되지 못한 老婆心인지는 모르겠으나 如何로 내가 조금이라도 「까유」나 「샤르트르」의 作品을 손대지 않은 그러한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現代思想을 考察해보면 첫째 우리 가이 미 잘 아는 美國人의 世界觀인 「프라그마티즘」(Pragmatism)이요 둘째 소련을 비롯하여 共產國家에서의 世界觀인 「마사슴」(Marxism)과 팔로로 佛蘭西를 비롯하여 西구라파에 걸친 實存主義(Existentialism)의 方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實存主義思想」은 現代人의 中心思想이요, 今에는 全世界를 휩쓸고 있는 思想이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實存」내지 「實存主義」라는 말은 現代知識人들의 魅力을 끌고 있고 「實存」이라는 말 이런 곧 現代의 이요, 知的인 것으로 通하고 있는 呼聲이다. 하지만 이 「實存主義」란 말을 정말 理解하고 있는 지 「實存主義」의 本質이 무엇인지 우리 生活와 무슨 關係가 있는지 眞摯한 態度로 對하고 檢討해 보았는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問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남이 맘바지를 입으니 나도 그것을 입고 남이 「올라후프」를 하니 나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流行的인 思想으로서만 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지 當금하다.

思想을 單純한 先入觀念내지 流行思想으로만 아는 皮相의 觀察때문에 오늘날 우리 社會는 自己行動에 對한 絕對的責任과 連帶責任問題는 아랑곳 없이 理由없는 反抗만을 繼續하고 있는 現實이 아닌가?

(1)

그럼 우리가 「實存主義」를 眞摯하게 把握하는 態度로서는 實存主義思想의 系譜를 別견치 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紙面關係로 그러한 重大問題를 細詳히 取扱치 못함은 誠實한 일이다. 특히 우리는 이 實存主義思想이 「샤르트르」나 「까유」에서만 율어나온 思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實存主義思想이 現代人에게 共感을 갖게끔 한 理由를 살펴보기로 한다. 現代는 不安과 戰爭의 時代로 危機意識으로 充溢된 時代이다. 이같은 不安의 時代에 平和로운 思想이 나오려는 만무하다. 「實存主義思想」이 나오게된 直接的인 理由도 不安과 虛無의 思想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全人類가 느끼는 氣分의 「虛無主義」, 文學作品을 통한 理論的인 「虛無主義」即 過去의 一切의 權威나 主義를 批判하는 態度로 對하는 「플레타프」의 「아들과 아버지」란 小說에서의 「바자르프」가 取하는 行動的 理論的인 「니힐리즘」에서 「實存主義」를 탄생케한 直接的인 緣由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虛無主義는 「프스트레프스키」의 「罪와 罰」중의 「라스콜니코프」에서도 잘 發見할 수 있다. 이러한 虛無主義에서 狂의인 虛無主義者였던 「니이제」가 實存主義로서의 理論을 展開하는 것이다 그는 從來의 歐羅巴人 生觀 即 基督敎的 價值觀과 道德觀을 一切 排擊하고 神을 否定함으로써 「超人」의 到來를 부러 짓었던 것이다.

이같이 「샤르트르」로 하여금 그의 思想을 남겨준 時代的 思想的 背景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實存主義」라 하면 「샤르트르」의 實存主義가 全部를 代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大別해서 「有神論的 實存主義」와 「無神論的 實存主義」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實存思想의 差異를 들 수 있다.

「有神論的 實存主義」의 神學에 서는 實存이 有神論的 實存主義와 神을 否定하는 「니이제」의 實存 또는 神學의 關係없는 「하이데거」의 「倫理的 實存主義」에서 「샤르트르」의 神을 否定하는 行動的 實存思想으로서의 順序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이 「實存思想」의 中心概念인 「實存」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한말 로 말해서 人間의 「本質」에 대한 「實存」을 意味 하는 것이다. 즉 「나」의 「本質」을 意味한다. 남자는 代價할 수 없는 「나」 너와는 代身할 수 없는 「나」, 唯一無二한 單獨者로서의 「나」를 意味한다 「키엘케골」의 「個別者」요 「單獨者」로서의 主體를 말한다. 「키엘케골」은 「主體性」이 곧 「眞理」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實存主義의 實存이 무엇이며 왜 「實存主義」를 虛無主義 「不安의 哲學」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다.

「키엘케골」은 늘 孤獨하고 불안한 實存哲學者였다. 그는 늘 孤獨한 生活를 했다고 한다. 그는 自己 自身을 가리켜 이렇게까지 말했다. 「모두 다 똑바르 서 있는 활자에서 혼자만 이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 人生의 誤謬」이라고 그는 산 비둘기 만이 와서 등지를 드는 孤獨한 나무에다 自身을 比較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그는 쓸쓸하고 孤獨한 生活를 하지 않았던 안되었는가? 간단히 말해서 自己 自身에 대한 「誠實」에서 살기 위해서 世上과의 妥協이 斷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自己에 대한 「誠實」人間에 대한 「誠實」만이 實存主義의 基本思想이기 때문이다. 「誠實性」없는 곳에 「實存」은 있을 수 없고 誠實만이 참된 實存主義의 意義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이 「誠實性」이 있기 때문에 實存主義는 「放從主義」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無神論的 實存主義」의 先驅者인 亦是 孤獨의 哲學者 「니이제」를 잠깐 살펴보자 「니이제」는 앞서

말한 「키엘케골」의 「神學」에서 單獨者로서의 宗教的 實存에 對하여 「니이제」는 神은 죽었다고 하는 無神論的 實存主義에서 「超人」의 理念을 내세우나 勿論 「니이제」도 時代와는 符合할 수 없는 「例外者」였다. 「孤獨」는 나의 故鄉」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神은 죽었다」는 것이 다. 즉 그는 一切의 既成價值를 拒否했다. 그는 當時의 人間들에게 「그대의 孤獨으로 돌아가 그대 自身들의 길을 걸으라」고 외침으로써 誠實性을 缺如한 人間들의 萎靡 懶弱 卑劣 弱少 偽善等의 態度에 嗚呼를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人間의 「誠實性」을 부르짖고 「過去의 一切의 價值는 새로 決定되어야 한다」 「『나는 法則을 모조리 破壞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過去의 價值란 基督敎的 倫理觀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神은 죽고 過去의 價值를 否定하는 곳에 「人間에 대한 「誠實性」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神은 죽은 이상 이제는 大地에 充實한다는 것이다. 나그네 「니이제」는 「超人」은 양의 意味(Der Übermensch ist der Sinne des Erde)라고 했다.

여기서 「超人」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길게 說明을 추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계속)

어울림의 마음

南 仁 淑

플레넬을 호듯이 몸에 배어 들고 아카시야 송이송이 아침 이슬에 젖어 향기 내뿜는 이른 아침이다 한낮에 번거로움과 황혼의 고요가 싫어 아침이 된 찾아오는 것이 버릇이 되어온 장송 송원 약속에서 멀게 가 멀어져 높고 달하게 가지를 벌은 이름 모를 나무 아래에 누워 앉았다 보오얀 안개 깔린 서늘시기가 눈에 찬다 소생하는 봄기운처럼 예배당의 종소리로 시작되는 사바의 제재이기도 하다.

눈부시게 찬란한 명동이 있고 누더기를 걸치고 신사 숙녀들에게 한문 두문 구걸해 살아가는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으니 서울도 그 어느 곳 처럼 사뭇 찬담과 지옥이 나뉘어 있는 또 버림받은 세계인 상도 싶다 풍원의 신선한 공기속으로 은은히 젖어 나오는 이른 새 소리—나무들의 비밀스런 얘기— 아카시야 꽃들의 훤날림속에 피어나는 오월의 향기— 조풍 조풍 구슬처럼 떨어달린 하얀 이슬방울— 사랑과 같은 오물한 거변에 살라 버리는 조용한 나의 세계—

아카시야 꽃잎 하나를 입에 따 물고 꿈을 늘어놓다 허공에 감촉되는 달콤한 향내— 한일 또 한일 그만 아카시야 향기에 취해버린 모양인가!

나를이 푸르게 심심하게 살아가는 희망 찬 5월에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정열을 송두리째 불살라 버리려는 생인자 플 내음을 이트록 내뿜는 푸름 때문에 여기선 내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때문인가! (E1)

書 評

슬라브學(Slavic Studies)이란 歐美諸國에서 서서 다른 社會科學이나 人文科學部門에 比較적 比較的 새로운 學問인 Slavic languages를 사용하는 人口가 Romance나 Germanic (英語를 除外한) languages를 사용하는 人口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 있어서 이들과 同等한 位置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美國에서 슬라브研究課程을 처음으로 設置한 곳은 Harvard大學이며 이것은 약 60년 전에 일이다 Chicago大學의 슬라브學者였던 Samuel N. Harper 教授가 死後에 發表된 追想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美國의 슬라브研究의 課程이 그때 그때의 政治情勢에 左右되었던 것도 亦是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2次大戰爭은 契機로 해서 美國의 슬라브學은 時代的 籠兒로 再登場했으며 그 質과 量에 있어서의 長足的 進歩는 刮目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무렵에 Strakhovsky 教授가 主幹이 되어 18명의 著名한 슬라브學者의 協力を 얻어 엮은 것이 이 Handbook이며 1949년까지의

美國의 슬라브學界의 總決算이라 해도 過言이 아닌 力이다. 아달한 28개의 Chapter속에 슬라브諸國—러시아 폴란드 보헤미아 체코슬라브키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크로치아 슬로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및 루마니아—의 地理 歷史 人類學 言語學에 關한 全般的인 知識을 年代順으로 提供하고 있다 28개의 論文中의 그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서는 不可缺하였다 Leonid I. Strakhovsky編

A Handbook of Slavic Studies, Harvard University Press

車 榮 根

한 知識의 寶庫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A General Approach to Slavic Studies는 슬라브研究에 있어 절음이라 할 수 있는 슬라브諸國의 歷史에 關한 基礎文獻이 日일히 詳細하게 紹介되어 있다 執筆者를 一瞥하면 1946년에 作故한 美國의 슬라브學의 第一人者 Samuel Hazzard Cross 教授가 「슬라브族의 起源과 移動」(Slavic Origins and Migrations) 「原始 슬라브文化」(Primitive Slavic Culture) 「러시아 文學史」(Russian Literature from its origins to 1880)를

擔當하였고 現 Columbia大學의 슬라브 言語學科의 主任教授이며 美國의 러시아研究所(Russian Institute)의 所長인 E. J. Simmons 教授가 「소베트文學」(Soviet Russian Literature)를 擔當하였다 其他 執筆者들도 모두 Harvard大學을 爲始한 美國의 슬라브研究所에 對하여 該國의 一流 學者들 뿐이다 一例를 든다면 「폴랜드」를 執筆한 Oscar Haelecki 教授는 Warsaw大學에서 長年 間 教授生活를 한 다음 Sorbonne大學을 거쳐 Fordham大學으로 온 學者다.

이 책의 가장 貴重한 것은 各章마다 英 獨 佛 語로 된 文獻이 提示되어 있는 點과 슬라브 各國의 比較 年代表가 卷末에 添附되어 있는 點이다 何處를 구하여 말한다면 이 책의 編纂 趣旨가 如何한 것인지 詳細하게 紹介되어 있다 執筆者를 一瞥하면 1946년에 作故한 美國의 슬라브學의 第一人者 Samuel Hazzard Cross 教授가 「슬라브族의 起源과 移動」(Slavic Origins and Migrations) 「原始 슬라브文化」(Primitive Slavic Culture) 「러시아 文學史」(Russian Literature from its origins to 1880)를

(노역과 전일강사)